

## 2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통해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회화화하고 있다.  
 ③ 인물의 회상 장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과거에서 찾고 있다.  
 ④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여 사건 전개의 양상을 다변화하고 있다.  
 ⑤ 인물의 내면을 행위로 제시하여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22. (가)의 [이발소 소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을 관찰하여 일상의 변화를 포착한다.  
 ② 특정 가족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분석한다.  
 ③ 새로운 사건을 모으고 그 진위를 논평한다.  
 ④ 천변의 소식을 타 지역 주민에게 전해 준다.  
 ⑤ 천변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중재한다.

##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가 가진 정보를 상기시키고 있다.  
 ② 정보를 제공한 인물을 독자에게 환기시키고 있다.  
 ③ 독자를 언급하여 서술자의 개입을 드러내고 있다.  
 ④ 정보가 실현되지 못한 원인을 독자의 망각에서 찾고 있다.  
 ⑤ 인물의 행선지와 관련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 24. (가)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짧게 느껴지는 '골목'은 어머니의 아쉬움을, (나)의 빠져 나오기 힘든 '골목길'은 '시시한 동네'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는 딸이 멀리 떠나는 모습을 통해, (나)는 명숙이 집 밖에서 엿듣는 모습을 통해 가족들 간의 갈등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가)의 '눈물'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자의 아픔을, (나)의 '어금니'는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가는 자의 견딤을 보여 주고 있다.  
 ④ (가)는 주인 영감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신전 집 가족들을 통해, (나)는 만삭의 봄에도 누더기를 깨매는 아내의 모습을 통해 가족이 처한 불우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는 '도회에서의 패잔자'가 낙향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영호가 취직을 거부하는 모습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25. (나)의 '#68~#71'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8의 장면에 이어지는 #69에서 '철호(⑥)'를 삽입하여 회상의 주체가 철호임을 알려 주고 있다.  
 ② #69에서 '철호(⑥)'를 삽입하여 아내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③ #69에서 '노래'를 활용하여 학창 시절 아내의 화면을 결혼 피로연장 아내의 화면으로 전환하고 있다.  
 ④ #70에서 침묵하는 철호의 모습과 시가지의 분위기를 대비하여, 거리를 바라보는 철호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⑤ #70의 침묵과 #71의 대화를 상호 대비하여 영호의 소심함을 드러내고 있다.

##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여 푸는 수학적 전통을 이어받은 코페르니쿠스는 천체의 운행을 단순하게 기술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고, 그것이 **[일으킬 형이상학적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는 우주의 중심에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지구의 주위를 달, 태양, 다른 행성들의 천구들과, 항성들이 붙어 있는 항성 천구가 회전한다는 지구 중심설을 내세웠다. 그와 달리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고정하고 그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공전하며 지구가 자전하는 우주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원으로 행성들의 가지적인 운동을 설명할 수 있었고 행성이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에서 단순성이 충족되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고수하는 다수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신의 형상을 **[지닌 인간을 한갓 행성의 거주자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16세기 후반에 브라헤는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과의 상충을 피하고자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고정되어 있고, 달과 태양과 항성들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지구 외의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케플러는 우주의 수직 질서를 신봉하는 형이상학인 신플라톤주의에 예료되었기 때문에, 태양은 우주 중심에 배치하여 단순성을 추구한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경험주의자였기에 브라헤의 천체 관측치를 활용하여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의 운동 법칙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우주의 단순성을 세롭게 보여 주는 이 법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을 더 이상 온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세기 후반에 뉴턴은 태양 중심설을 역학적으로 정당화 하였다.]** 그는 만유인력 가설로부터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들을 성공적으로 연역했다. 이때 가정된 만유인력은 두 질점이 서로 당기는 힘으로, 그 크기는 두 질점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지구를 포함하는 천체들이 밀도가 균질하거나 구 대칭<sup>\*</sup>을 이루는 구라면 천체가 그

**[A]**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은, 그 천체를 잘게 나눈 부피 요소를 각각이 그 천체 밖 어떤 질점을 당기는 만유인력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지구보다 질량이 큰 태양과 지구가 서로 당기는 만유인력이 서로 같음을 증명할 수 있다. 뉴턴은 이 원리를 적용하여 달의 공전 궤도와 사과의 낙하 운동 등에 관한 실증값을 연역함으로써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였다.

16세기 말부터 중국에 본격 유입된 서양 과학은, 청 왕조가 1644년 중국의 역법(曆法)을 기반으로 서양 천문학 모델과 계산법을 수용한 시헌력을 공식 채택함에 따라 그 위상이 구체화되었다. 브라헤와 케플러의 천문 이론을 차례대로 수용하여 정확도를 높인 시헌력이 생활 리듬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서양 과학이 중국의 지적 유산에 적절히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이더라도 불온한 요소로 **[여겼다]**. 이에 따라 서양 과학에 예료된 학자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양 과학과 중국 전통 사이의 적절한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26. &lt;보기&gt;를 바탕으로 (가)의 ㉠~㉡과 (나)의 '#71~#75'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작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든 상황을 서술하지는 않는다.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들 중 작가의 시선에 의해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어 서술되는 것이다. 즉, 서사는 시간과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의 선백과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 선백이란 시간과 공간을 분할한 후 의미 있는 부분을 선백하는 것을, 결합이란 이렇게 선백된 시간과 공간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새롭게 사건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사는 다양한 사건 구성의 방식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고민을 담고 있다.

- ① ㉠에서는 두 인물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서 몇 개의 상황만을 선백적으로 제시하여 그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고, #71과 #72에서는 서로 다른 두 공간을 동일 인물의 등장으로 연결하여 인물의 공간 이동을 나타내는군.  
 ② ㉡에서는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이 일어났음을 밝혀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결합하고 있고, #73과 #74의 서로 다른 공간은 동일한 인물들의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서로 결합하고 있군.  
 ③ ㉢에서는 일련의 상황을 선백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에 대한 감정을 서술하고 있고, #73~#75에서는 두 인물의 대화를 매개로 서로 다른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73과 #75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74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군.  
 ④ ㉣과 ㉤의 연결은 같은 날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이라는 점에서는 #74와 #75의 연결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목소리를 활용하는 #74와 #75의 연결과 비교하면 연결 방식에서 구별되는군.  
 ⑤ ㉥은 시간의 흐름을 분할하고 대상의 특징적인 변화를 선백하여 제시한다는 점에서 #75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두 공간의 결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75와 구별되는군.



캐논의 미러리스 카메라 'EOS M50'.

/캐논코리아

## 제1교시(홀수형) 국어영역 정답

문제	정답	배점	문제	정답	배점
21	⑤	2	22	①	2
23	④	2	24	②	2
25	⑤	2	26	⑤	3

또한 영상촬영에 특화된 제품으로 캐논 미러리스 최초로 4K 24p의 고해상도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며 회전형 터치 LCD와 손가락 터치를 통해 AF를 조정하는 '터치 & 드래그 AF',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을 편리한 촬영부터 편집·콘텐츠 업로드까

지 곧 바로 가능해 브이로그나 영상 등 1인 미디어에 최적화된 카메라는 평가를 받는다.

캐논은 올 겨울 카메라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캐논 겨울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EOS M50뿐 아니라 DSLR 카메라 EO

S 200D를 구매하면 정품 배터리를 추가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또, '겨울맞이 프로모션' 이벤트 승인 완료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1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크리스마스 기프트 카드 등을 추첨을 통해 추첨을 증정한다. /구서윤 기자 yun2514@metroseoul.co.kr